

수도권 3개 기업, 전남에 1조2천억 투자

포스코홀딩스(주) 등 신규 일자리 400여개 창출 기대 도, 서울서 투자유치 설명회...글로벌기업 유치 주력

전남도는 14일 롯데호텔서울에서 투자환경과 투자인센티브를 설명하는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포스코홀딩스(주) 등 3개 기업과 1조2천75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록 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공영민 고흥군수, 박형식 여수부시장과 이방실 SK하이닉스 부사장, 박영태 캡스 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박희준 EIP자산운용 대표, 주영진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장,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강운성 재경광주전남항우회 수석부회장 등 100여개 기업 대표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유치를 목표로 중점 주력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수소, 반도체 등 전남의 역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환경과 투자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하고 전남에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 기업도시인 '솔라시도' 구성지구 개발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미래도시로 조성 중인 솔라시도의 투자 장점을 설명하면서 관광시설,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용산업용지, 웰니스 산업 등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다.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데이

터센터 투자를 투자기로 한 TGK(주)는 해외 투자유치 계획과 사례 발표를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국내외 기업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포스코홀딩스(주), 금호미쓰이화학(주), LFP(주) 등 3개 기업과 1조2천75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이번 투자유치로 4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세종산단에 투자하는 포스코홀딩스(주)는 2025년 말까지 5천751억원을 투자해 양극재용 수산화리튬제조 시설을 건립하고, 금호미쓰이화학(주)은 여수 국가산단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24년 중순까지 폴리우레탄 핵심원료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LFP는 고흥군에 2천억원을 투자해 2029년까지 호텔(250실)과 해양휴양빌리지(수목원, 미술관, 해양레저시설 등)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2025년까지 30조원 투자 유치와 3만5천개 일자리 창출 기반

을 목표로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있다"며 "전남은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고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전남에 많은 투자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남도가 탄탄하게 다져놓은 인프라 위에서 기업이 역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전남도에 투자하도록 지속적인 유지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전남도는 1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도권 CEO를 대상으로 '2022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투자유치 체결 모습. (전남도 제공)

“자산IC 진출로 설계변경 특별감사를”

박수기 시의원 5분 발언 “의혹 투성이” 지적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은 14일 열린 제3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주 제2순환도로 자산IC 인접 진출로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을 시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는 광주시의 책임있는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산IC 인접 진출로는 설

계변경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성 우려와 반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공식적인 자문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자문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은 처음 계획한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2019년 말 착공, 2년 만에 완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6년 설계 용역 당시 진출로는 우측 갓길이었다. ‘소음피해, 분진, 사생활 보호’ 등을 주장하며 진출로를 왼쪽으로 변경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2019년 설계를 변경했는데 누가 봐도 의문이 든다”며 “설계변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최초 보고서이자 한 기술사

가 제출한 검토의견서는 이격 거리 등은 언급조차 없는 말 그대로 메모에 불과했고 삭제 및 최소 반대 의견 축소 왜곡 정황은 3차례 자문회의 회의 결과 보고 서류마다에서 총 4군데가 발견되는 등의 의혹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77억원을 들인 자산 IC 왼쪽 진출로는 안전 우려로 개통도 못보고 무기한 보류됐다”며 “사회·경제적 비용은 온전히 시민이 떠안게 됐다. 행정 난맥상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가 시민 눈높이에서 보다 책임있는 태도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선강기자

전남개발공사, 무재해 사업장 달성 안전간담회

전남개발공사는 14일 건설시공사 경영진을 초청해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위한 안전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안전 최우선 경영 체계

확립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경영진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총 10개 현장의 시공사 사장단 33명이 참석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공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특별교육과 참석자

전원이 무재해 달성을 다짐했다.

장충모 사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자율 안전보안관리체계 구축 및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도의회 여수광양항특위 활동 본격화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활성화 방안 모색

전남도의회 여수광양항활성화특별위원회는 14일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이광일(더불어민주당·여수1) 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특위 위원들과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참석, 여수광양항 현황을 청취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과 자문위원들도 참석해 전남도의 지원 대책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이광일 위원장은 “여수광양항활성화 특위가 발족한 후 첫걸음을 항만공사에서 시작한 것은 국내 최대 종합 항만인

여수·광양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공사가 하고 있는 일, 해야 할 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정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광양항활성화특별위원회는 이광일 위원장을 비롯해 광양 출신 임형석 부위원장, 여수 출신 서대현·강문성·주종섭 의원, 순천 출신 김정희·김진남·김정미 의원, 고흥 출신 박선준 의원,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조치

채은지 시의원 대표 발의 개정조례안 통과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주최자가 없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등에서 광주시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한 게 골자다.

조례안은 주최자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밀집 행사를 주최자 없는 행사로 정의하고, 주최자 없는 행사 등에 대해 재난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

다고 명시했다. 채 의원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상위법령이나 정부지침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광주시 차원의 선제적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23명 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킨트를 타워의 부재와 부실한 안전 관리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연말연시 다양한 축제·행사가 예정된 시기에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으로써 대형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강기자

“전남 학생선수 지원 예산 20억 증액”

정철 도의원, 예결위 심사서 반영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14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남도 학생선수 지원예산 20억원 증액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3년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와 체육 영재 육성 토대 마련을 위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세부 사업 별로 증액한 내용은 ▲과학적인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고가장비 3억원 ▲전국단위 경기대회 출전비 10억

원 ▲전국단위 경기대회 훈련비 7억원 등 총 20억원이다.

정 의원은 “증액 예산 20억원을 포함해 학생선수 출전비·훈련비 41억2천만원, 전

국체육대회 대비 훈련비 35억1천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27억8천만원이 2023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면 전남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함께 2023년 전국체육대회와 202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 개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물절약 실천 캠페인

광주·전남지역 저수량고갈위기 시·도민들의 물절약 실천 절실



물절약 홍보 동영상

생활속 노력으로 최대 40%까지 수도물 절약이 가능합니다

시민 1인당 최소 20% 물절약을 실천하면 내년 장마시작(6월초) 전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생활속 물절약 실천방법

수도밸브 수압저감

20~40% 절약가능



세탁기, 샤워기, 욕조, 세면대, 싱크대 하부 밸브 조절 (일일) 왼쪽회전 (리튬) 오른쪽회전

샤워시간 절반 줄이기

50% 절약가능



1분당 12L 물절약 가능

빨랫감 한번에 세탁하기

30% 절약가능



양치컵 사용하기

70% 절약가능



1회 5L 절약

양변기수조 필밸브 조절 및 물병넣기

20% 절약가능



필밸브(플팅) 내리기 1.8L 물병 1~2개 넣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60% 절약가능



광주시민(1인) 1일 수도물 사용량 약 300L 물절약 실천으로 최대 40% 절감 가능